

그 말이 주는 아픔

신윤식

그 말
내게 와서
기쁨만 되길 원했는데
되레 아픔으로 다가와
가슴을 후릴 때
귀를 닫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뜨거운 바람 되어
아픔에 젖은 마음 스치니
나 이제야
저 하늘을 향해
숨이 쉬어집니다.

그 말
아픔도 울음도 거두는
깊은 사랑으로 다가와
축복을 꽃피우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말이 주는 아픔의 의미를

아픔이 없이는
그 사랑 알 수 없으니
그 말이 주는 아픔
죽는 날까지 있어야 함을

제23권

44

2015년 11월 8일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사55:8)

 **은석교회**
GOSPEL EUNSEOK CHURCH
www.onlycross.net

담임목사
신 윤 식
시무장로
이영민 이성희
협동장로
조규현

MATHETES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38길 7-12 ☎ 421-9049 070-8714-9049 010-3323-9049 sys5806@hanmail.net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의 자리로 끌어가는 것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즉 죄의 자리로 끌려가서 우리의 모든 껍데기가 벗겨지고 감추어져 있던 죄가 드러나며 그 죄로 인해 자신의 실체에 대한 정직한 자각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죄와 상관없이도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항상 차별적이고 유동적이며 비보편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아닌 소유를 배경으로 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아닌 소유가 은혜의 배경으로 자리하기에 소유의 질적 양적의 차이에 따라 은혜는 차별될 것이고, 소유의 변동에 따라 은혜 또한 변동되고, 모든 신자의 소유가 동일하지 않으니 은혜 또한 비보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없이는 인간의 실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실상에 대해 다루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자신을 믿음 있는 것으로 간주하면서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점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는 거리가 먼 폭력적인 존재로 비춰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추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문은 선지자들의 반역과 제사장들의 죄와 고관들의 악함과 백성들의 죄로 구분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31절)고 말씀하는 것처럼 심판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구약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구약의 하나님처럼 끈질기게 죄를 추궁하고 드러내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밀어내고 대신 여러분을 인정해 주고 사랑하시며 복을 주는 하나님이 하나님이기를 원하는 탐심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탐심을 탐심으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장한 죄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처럼 죄와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인되어서는 안됩니다. 요일 4: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 이스라엘을 치시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며 백성들을 포로 되게 하시고 큰 고통 가운데 있

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신 신약의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해가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함께 본문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여호와께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찌꺼기라면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행한 모든 것 또한 찌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문제는 자신들이 찌꺼기이며 찌꺼기인 자신들이 행한 것 또한 찌꺼기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는 행함으로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찌꺼기라는 말은 인간을 단지 가치 없는 존재로 깃밟고자 한다기보다는 하나님과 무관한 것을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처럼 붙들고자 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찌꺼기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는 의미임을 생각해 보면 찌꺼기는 듣기 거북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무관한 것을 잘라내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은혜임을 아는 그가 말씀에 눈 뜬 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의 가치'라는 탐심의 시각으로는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선지자, 제사장, 고관, 백성으로 나누어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은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키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그 가운데 과부가 많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선지자의 악함에 대해 하나님을 반역한 것으로 말합니다(25절). 그리고 고관들을 위해 회를 칠

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술을 행하고 자기들의 말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속여 전한 것입니다(28절).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으며 백성들까지 그러한 구별을 하지 않게 만들었고 눈을 가리어 안식일을 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게 하였으며(26절),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였다고 말합니다(27절).

선지자, 제사장, 고관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인도하고 가르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 악을 행했으니 백성들의 신앙이 어떠할지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으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는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의 죄로 국한 되지 않습니다. 우린 선지자가 아니니까 제사장이 아니니까 고관이 아니니까 그들의 죄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벤전 2: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합니다.

분명!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택하신 족속,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만큼 존귀한 존재임을 부각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어떤 역할을 위해 세움

받았는가를 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면 어떠한 사람으로 세상에 존재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죄는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세상은 죄를 여러 가지로 구분하여 말합니다. 살인과 사기를 동일한 죄로 보지 않습니다. 죄라는 면에서는 같지만 그 행위가 다르기에 죄도 다르다고 보는 것이 세상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를 하나로 봅니다.

그러면 죄란 무엇일까요? 악에게 지배당하는 본성입니다. 즉 인간이 버리지 못하는 습성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 습성은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고 높아진 존재 가치를 힘으로 여기며 약자들 위에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언급되는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고관들이나 백성들의 죄가 이러한 습성에 의한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습성을 렘 5:30-31절에서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자기 권력으로 삼아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백성들은 오히려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이처럼 백성들이 거짓 예언을 좋아하고 제사장이란 권력으로 다스림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백성들조차 하나님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복 주시는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복 주시게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선지자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은 백성들의 이러한 생각을 이용하여 그들의 생각에 맞는 하나

님을 말하고 백성들은 당연히 그것을 좋게 여긴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도 선지자도 백성들도 나의 유익이라는 습성에 하나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우리 역시 나의 유익, 나의 소유에 집착하는 습성에 따라 움직입니다. 즉 본문이 거듭 확인해 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 선지자고 율법을 범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으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아니한 것도 자기 생각에 맞으면 여호와와 말씀으로 간주하는 그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면 본문은 단지 이스라엘의 죄와 우리의 죄가 다르지 않다는 동질감을 갖게 하는 것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나의 죄가 같음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 본문의 전부라면 우리의 생각은 결국 죄를 고치려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30,31절을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죄를 언급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결정적 문제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진노의 불로 명하여 이스라엘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의인의 존재에 있었습니다. 의인도 몇 사람, 또는 수십 명이 아니라 단 한 사람만 요구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만의 의로움이라 할

지라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서 능히 건질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한 사람의 의인조차 찾지 못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의인을 찾으려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묻습니다. 결국 의인 열 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열 명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그들의 죄 때문일까요 의인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표면적으로는 죄 때문이지만 어쨌든 의인을 찾으려 죄로 인한 심판을 피할 수 있었음을 생각해 본다면 결정적 이유는 의인이 없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 역시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렘 5:1절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 하리라”** 고 말씀합니다.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정의를 행하여 진리를 구하는 그가 곧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소위 조상 대대로 율법을 지키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앙하며 섬긴다고 자부했던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의인입니까? 아니죠? 아무도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나설 수 있는 자격이 없음을 우리 스스로 잘 압니다. 이 말은 우리는 정의를 행하지도 진리를 구하지도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목사도 장로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목사 장로라는 위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위에 서고자 하는 탐심만 드러내었을 뿐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말씀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나 자신에게로만 향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안다는 것으로 마치 나의 관심이 말씀으로 향해 있는 것처럼 간주합니다. 이것이 위선이고 착각이며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에 해당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여러분 자신이 말씀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신에 대한 환상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주관적 판단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판단입니다. 즉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목사의 위치와 자리에서 그대로 전해 드리는 것이며, 저 역시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로 판단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고 해서 저의 관심이 말씀으로만 향해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의 관심은 여러분과 동일하게 저에게로 향해 있고 세상으로 향해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변하지 않은 악한 습성입니다. 다만 이러한 저의 관심과 습성이 악한 죄임을 알게 하시고 목사로서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에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증거 되는 것뿐입니다. 결국 드러나는 것은 우리를 도구 삼아 하나님이 일

으키시는 일이며 그 일에 동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의해 행위대로 보응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의인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멸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소속된 자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안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주와 심판으로 밀어 넣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복임을 알게 하시

고 그러한 복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고 찬송케 하심으로 영광 받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인다운 특별한 행함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죄와 함께 30절과 31절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행함을 요구하신다는 생각에 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보내신 아들입니다. 우리는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되는 세계에 있게 되었으며 이것이 진노의 대상에 지나지 않은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세계가 부인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 하고자 하게 되는 것이 신자입니다.

주일오후설교

(10.4일 설교 84강)

은혜가 있을지어다

엡 6:21-24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서신은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23,24절)로 끝납니다. 에베소 교회에 평안과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바울의 기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있을지어다’는 말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없기 때문에 있을지어다는 말이 성립되는 것이지 은혜가 있는 상태

인데 ‘있을지어다’라고 한다면 웃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웃 입어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은혜가 없었던 것일까요? 에베소 교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면 은혜가 있다 없다는 말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무엇 때문에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예수 그

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점을 생각해 보면 바울의 말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길로 나아갈 것을 원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속한 신자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은혜를 받아서 현재보다 좀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의도가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뜻하는 것이기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은혜는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주지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은혜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자신의 뜻과 의지에 의해 결정되고 성취되는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신자는 한 순간도 은혜 없이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육신의 삶에 국한된 말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인해 죄인 됨을 알게 되고 내가 부인되는 길로 이끌려가는 모든 것이 은혜의 사건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죄인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자리로 이끌어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오직 은혜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1,22절을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어 에베소 교회에 알리고자 했던 바울의 사정은 무엇일까요? 당시 바울은 옥에 갇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자신이 옥에 갇힌 형편임을 알리고 싶어 했다는 뜻일까요? 사도인 자신이 옥에 갇혀 있다는 사정을 알리는 것이 에베소 교회에 유익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로 인한 걱정만 안겨주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바울이 알리고자 한 사정은 옥에 갇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게 되는 그 사정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 그 은혜가 자신을 이끌어 간 사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은혜로 인한 사정을 알림으로 에베소 교회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이 있게 하실 것임을 믿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옥에 갇힌 사람이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옥에 갇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게 될 뿐입니다. 은혜를 자신의 기대에 맞추어 생각해도 한탄이 나올 뿐입니다. 현실은 항상 자신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기대를 품고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자기 세계를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은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안다면 그 앎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으로 증거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기도하게 되고, 헌금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으로 증거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 신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의에 대해 살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뜻이고 따라서 자신을 증거하고자 하는 습성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는 신자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행함으로 스스로를 증거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증거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지 자신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신에 대해 죽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에서도 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고난에서 건짐 받지 못하고 고난이 계속 되다가 죽임을 당한다 해도 그 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 옥에 갇힌 자기 사정을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현대 교인들이 은혜에 대해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자신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 그 방향성보다는 은혜 받은 자신에게 더 관심을 두는 것이 잘못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현재보다 믿음이 더 나아지고 그렇게 되고 자신의 믿음이 인정받으며 좀 더 가치 있는 존재 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탐심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의 사정은 옥에 갇힌 것도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정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는 일이 힘들다는 것입니까? 육신의 시각에서 보면

돈이 풍족하지 못하고 일이 풀리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의 사정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자기 사정을 봐주시기를 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의 시각에서 본다면 신자의 사정은 은혜가 있음으로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고 내가 부인되는 자리로 이끌려 가는 것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사정입니다. 육신의 환경이나 형편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방향으로 이끌려 가는 것입니다.

엡 1:4-6절을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고 말합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자는 은혜가 있는 자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거저 베풀어진 은총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가 되는 것이 은혜 있는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뜻을 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자신을 뜻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을 위해 은혜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은혜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신자로 하여금 어떤 형편에서도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난에서도 그

리스도 때문에 감사하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 고난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은혜는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며 세상에서의 성공도 아닙니다. 은혜는 내 죄를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음으로 십자가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사라지고 부요와 편안함을 우리는 살입니까? 아니면 남은 인생을 소유가 작든 많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기적일까요? 하루아침에 부자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기적은 탐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자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소원이 자리한다는 것은 돈이나 권력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신자는 매일이 기적입니다.

수요일설교

(11.4일 설교 74강)

라반에게 속은 야곱

창 29:21-30

야곱이 하란 근처의 땅에 도착하여 양들을 물고 오는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자신이 라반의 생질이며 리브가의 아들임을 말하고 라헬은 라반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소식을 들은 라반이 달려와 야곱을 영접하고 안고 입 맞추며 자기 집을 인도하여 들였다는 것이 본문 앞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거주한지 한 달이 되었을 때, 라반은 야곱에게 네가 비록 내 생질이지만 내 일을 그저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품삯을 어떻게 할지 말하라고 합니다. 라반의 말에 야곱은 두 딸 중에 라헬을 더 사랑하여 라헬을 위해 칠년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칠년을 일할 것이니까 라헬을 아내로 달라는 것입니다.

라반은 라헬을 타인보다는 야곱에게 주는 것이 더 낫다고 하면서 야곱의 요구를 허락하고 야곱은 라헬을 위해 라반의 집에서 칠 년 동안 섬겼지만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칠년을 며칠 같이 여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하기 때문에 칠년이라는 세월이 길게 느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야곱은 라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결혼식 때 라반이 라헬 대신에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갔고 야곱은 레아를 라헬로 여기고 동침을 한 것입니다. 아마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동안 에서와 이삭을 속여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 야콥은 원하지 않은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야콥이 칠년을 더 라반의 집에서 섬김으로 라헬을 얻기는 하였지만 어쨌든 레아는 야콥의 계획에 없던 여인이었는데 라반으로 인해 야콥의 인생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뤄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개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소원성취'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콥이 생각했던 하나님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뤄주는 하나님이었고, 그것을 복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야콥의 생각대로라면 라반의 집에서 수고한 칠 년 뒤에는 라헬과 결혼하여 자식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은 레아와 결혼하게 되고, 비록 나중에는 라헬과 결혼은 하였지만 레아와 라헬의 갈등으로 인해 야콥의 가정이 편치 못했음을 생각한다면 야콥의 삶은 야콥의 뜻대로 흘러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야콥의 뜻대로 되었다면 야콥은 라헬과 결혼한 것으로 평생이 행복했을까요? 야콥에게든 인간에게든 소유욕이 있습니다. 그 소유욕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족함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인생이 뜻대로 되었다고 해서 만족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내 뜻대로 안되는가?' 로 인해 불만을 갖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를 위한 인생에만 매달려 왔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삶에서 주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콥을 보면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은 꼬여만 갑니다. 축복을 받았는데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고생하여 라반의 집으로 가긴 했는데 속임을 당합니다. 분명히 야콥이 생각한 형통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것을 보면 야콥이 평소 속임수를 잘 썼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벌로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게 하신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야콥이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자신이 에서나 이삭을 속인 일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지만 설사 야콥이 라반의 속임으로 인해 예전의 자기 행동을 반성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한 회개나 애통은 아닙니다.

가령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고 여행을 갔는데 사고로 발을 다치게 됩니다. 그런 경우 대개는 주일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 벌 받은 것으로 생각이 기울어집니다. 평일에 다치면 '하나님 더 크게 다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주일에 다치면 자신의 죄와 연결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과는 상관없는 인간의 종교성입니다.

하나님은 야콥으로 하여금 자신이 이삭을 속였던 일을 뉘우치게 하기 위해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은 야콥으로 하여금 인생이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음을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창 28:15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

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이 구절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의 중심에 자신을 두게 되면 결국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일하시는 분으로 해석될 것입니다.

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일을 도와주시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는 말 역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위험에서 건지신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에 대한 세상의 이해고 해석입니다. 그리고 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함으로 도움을 받을 조건을 스스로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개입을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도움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시고 그를 이끄시며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은 야곱의 뜻을 돕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존재하는 야곱이 되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세우신 뜻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히 담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자기중심의 시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야곱이 복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야곱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야곱에 비해 어떻습니까? 야곱은 사기꾼이지만 나는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야곱이 에서와 이삭을 속이는 것은 소유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에 대한 집착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따

라서 우리 또한 복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야곱을 만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이런 우리의 관심과 욕망을 그리스도께로 바꿔 놓기 위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고 이끄시며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과 이끄심과 지키심으로 인한 기적의 사건입니다.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살게 한다는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살게 하십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나 같은 자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도우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십시오. 그 답을 희미하게나마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주어진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나 됨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에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죄 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능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가는 신자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루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신자는 두려움 없는 신앙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예배시간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30분

어린이예배 주일오후 1시10분

중등부예배 주일오후 1시10분

금요기도회 오후 7시30



(약모초)

오늘의 말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르치며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라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었도 그들이 탐심으로써
자녀의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벧후 2:1-3)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전 예배

11:00

인도 : 신윤식 목사

묵상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31장**
교 독 문 **6(시10편)**
기 도 **조규현 장로**
찬 송 **374장**
성경봉독 **겔 22:23-31**
설 교 **신윤식 목사**

그 한 사람 (51강)

기 도 **설교자**
찬 송 **94장**
교회소식 **이영민 장로**
*찬 송 **4장**
*축 도 **설교자**

다음주일기도 : **조규현 장로**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오후 예배

14:30

인도 : 신윤식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95장**
기 도 **이옥주 집사**
찬 송 **312장**
성경봉독 **마 7:17-20**
설 교 **신윤식 목사**
믿음과 열매 (믿음39강)
기 도 **설교자**
찬 송 **438장**
주기도문 **다같이**

다음주일기도 : **송재관 집사**

수요예배

19:30

인도 : 신윤식 목사

창세기 75강

은석소식

1.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때문에 신자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으로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 은총을 알아가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2.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모입니다. 다른 행사는 없지만 신자가 하나님께 들고 나가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희망하는 가정은 음식을 한 가지씩 준비하시면 점심에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3. 등록하셨습니다. (이경원, 서춘희 - 3구역)
철곡중앙대로 태전우방비전아파트